

초월의 통로로서의 기도와 의식

—대지진 재해 속에서의 「추도식」에 대해서—

동북 헬프

2011년 3월 11일, 태평양 앞바다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전장 2000킬로미터에 이르는 일본의 동북 지방의 태평양 연안에, 높이 최대 21.1m의 쓰나미가, 초속 최대 8미터의 기세로, 덮쳤다. 밀려 온 쓰나미는 가옥·자동차·수목 등을 흥기로 변화시켜, 도시를 덮쳤다. 2만명 가까운 희생자가 나오고, 몇십만의 사람들이 피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지진 재해로부터 일주일뒤, 센다이권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센다이 그리스도교 연합」은 「피해 지원 네트워크·동북 헬프」를 설립했다. 그 시기 이미, 전세계에서 물자와 자원 봉사가 모여 들고 있었다. 동북 헬프는 그 정보의 집약·정리·전송을 했다. 결과, 37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익자가 되었다. 우리들은, 세계에서 선의가 모여지는 그 모습에, 정말로 기적을 보게 된 것이다. 인간의 선의가 전개하는 크기에, 그저 놀랐다.

이미 그 사건으로 3년이 경과했다. 그 기적과 같은 광경을 본 우리들은, 여기에, 종교자의 한사람으로서, 현상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행한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현상에 맞추어 향하여 가는 길을 내보이고 싶다

먼저 피해지역의 현상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한다.

쓰나미가 덮치고, 쓸려 나간후. 그 결과 입은 재해는, 지금,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다. 잔혹할 정도로 확실하게, 일상으로 돌아 가고 있다.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상처가 남겨졌다. 그 상처는,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아픔 속에서 일상이 시작된다. 기억은 풍화 해 간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립해 나간다.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립해 간다.

한편 다른쪽, 쓰나미 피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 오는 것과 동시에, 피폭이라고 하는 현실이 점차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지진 재해에 기인하는 특별 죽음(지진 재해 관련 죽음)자수는, 후쿠시마에서,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지방 행정부가 전문가에 의한 위원회를 만들고, 지진 재해후의 사망자 속에서 「지진 재해가 없으면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선별하고, 「지진 재해 관련 사망자」라고 정의한다. 2014년 5월 부흥청 작성 자료에 의하면, 그 수는 1도 9현에 합계 3,089명이다. 그러나 그중 약 반 정도를 차지하는 1,704명은 후쿠시마현 주민이다. 전문가는 그러나, 그 원인은 방사능이 아니다 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오염물이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이 발각되어, 사고 대응이 엉망이라는것이 차례로 밝혀지고, 소아 갑상선암 및 그 병으로 의심되어지는것이 후쿠시마현 안에서만으로도 90명에 달한다.

불안이, 조용히 사람들을 좀 먹는다. 사태는 후쿠시마를 그냥두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괴담」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이트가, 여러가지 기형 식물의 사진을 대량으로 모아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끌고 있었다. 또 한국에서는, 생선회가 통상 1 할 밖에 팔리지 않게 되었다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였다.

고립과 불안이, 피해 지역의 현상을 나타내는 키워드다. 쓰나미 피해 속에서, 우리들 종교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그 것을 지금, 정리하며 확인하고, 현상을 향해서 총동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뜻을 가지고, 이하, 지진 재해로 일어난 사건을 간결하게 정리해 본다.

우리들 동북 헬프는 지금, 「동경 대학 피해 지역 지원 네트워크」 및 「미야기현 임상 심리사회」와 협력하여, 1995 년의 한신(阪神) 아와지(淡路) 대지진 재해 이래의 재해 대응의 발자취를 검증하는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 확실히, 동일본 대지진은, 그 발화 당초부터, 한신 아와지 대지진 재해와의 관계 속에 있었다. 그것은, 종교자도 같았다.

지진 재해 직후, 한신 아와지 대지진 재해의 실패 경험이, 종교자간에서 확인되며 공유되었다. 대재해 속에서 대량의 사망자가 나온다. 그 수가 많음으로, 애도하지도 못한채 태워지는 사망자. 그 참혹함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자는 일어난다. 이것은, 1995 년과 2011 년이 같았다. 그러나 1995 년에, 종교자와 행정과는, 심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그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2011 년 3월말, 사단 법인 센다이 불교회를 주도하며, 추도식의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곧 합류한 우리들 기독교인에게, 승려는 한신의 경험을 이야기 했다. 우리들은 그 실패를 배우는 것부터, 협동을 시작했다.

협동 속에서, 역할 분담이 생겨났다. 우리들 기독교인은 전국·전세계의 네트워크에 직결하고 있다. 그 커넥션을 이용하고, 우리들 기독교인은, 예를 들면 행정부의 책임자와 직접 상의할 수 있었다. 한편 불교자는, 지역 신도들의 네트워크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시시각각 바뀌는 현지의 구체적 상황은, 이 네트워크에 의해 시시각각 알게됐다. 지역의 밀착과 전국·전세계에의 직결이, 여기에 결부되었다. 거기에, 큰 가능성이 나타났다. 그 결실이, 「신원 불명자의 추도식」이다.

지진 재해는, 근친자의 돌연사라고 하는 사태를 대규모로 발생시킨다. 그 결과, 해소되지 않는 괴로움과 자책하는 마음을 덜기 위하여 사람들은, 「죽은자를 뒤 쫓는 자살」의 위험이 나타난다.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종교자의 추도식은 유익하다고, 자살 방지 전문가가 우리들에게 조언했다. 전문가는, 특히 「신원 불명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추도식을 요청했다. 「신원 불명자」의 배후에는, 「실종자」를 찾는 방대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도해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었다. 우리들은 그 요청을 받고, 제종교자의 공동 사업으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원 불명자의 추도식을 계속하고 있다.

신원 불명자의 추도식 사업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지진 재해로부터 3 주일후, 행정부는, 널리 종교자가 협동하여 일부 단체의 이익이 되지않도록 신중하게 확인한 뒤, 우리들 종교자가 행정시설인 화장터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것을 허가했다. 허가를 받고, 우리들 종교자는, 의료자·카운셀러·social worker 와 함께, 화장터에 추도식의 상담을 접수하는 「마음의 상담실」을 설치했다. 여기서 요청을 받아, 애도하고, 화장으로 가는 길까지 함께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되었다. 그리고 어떤때는, 신원 불명자의 사체가 보내져 온다. 함께하는 사람은, 경찰 관계자와 화장터 직원만. 그외에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한번에 3 사람 정도의 사체가, 화장된다. 그 현장에 우리들도 대기했다. 화로가 달히고, 화장이 시작된다. 그러자, 그 화로 앞에서 장의가 시작된다. 저쪽에서 명창이, 이쪽에서 축사가, 저쪽에서 찬송가가, 울린다. 아무도 없는 화장터는, 제종교의 교향(交響)의 장소가 된다. 그 광경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도대체 거기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들은, 애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목숨을 연장 시키는것도, 카운셀링도, 생활 재건의 상담도, 할 수 없었다. 한 것은, 의식을 행하며 기도한 것 뿐이다. 그러나, 의식과 기도를 할 수 있었다. 협력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가능하게했다. 그것은, 큰 것이었다.

죽음은, 거기에 있다. 사람은 죽는다. 멈추게 할 수 없다. 게다가, 죽음은 갑자기 온다. 치료의 모든 수단을 다 쓴 병자의 경우라도, 쓰나미에 덮친 사람의 경우라도, 역시, 죽음은 갑자기 온다. 우리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것조차, 할 수 없다. 우리들의 한계가, 죽음의 현실 앞에, 노출된다. 그 때, 사는 것의 의미가, 심각하게 다시 질문된다. 절망이, 조용히 다가 온다.

그러나, 우리들은 거기에서 기도 할 수 있다. 현실을 넘은 뭔가에 호소, 혹은 그 호소에 응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다. 그것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절망에 저항한다. 게다가 그 저항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을 행하고, 경문을 외치고, 찬양을 부른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초월을 상기한다. 기도와 의식은, 초월에 연결되는 희미한 길이 된다.

기도와 의식에 있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그 때, 절망에 절박한 사람들의 곁에 있다. 그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절망은, 감염된다. 그러므로 통상, 사람은 절망에 절박한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절망하는 사람은 고립한다. 이렇게 해서 절망은 그 사람 속에 고정해버린다. 사는 힘은, 그렇게 해서 빼앗긴다. 누군가가, 절망에 절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데. 그러나, 어떻게? — 여기에, 우리들 종교자의 역할이 있다.

한계를 느끼며, 그러나, 그래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고 있다. 한계를 느끼게하는 한가운데에서, 우리들은 「그래도 존재하게한다」라는 현실을 알아차리게 한다. 초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확인된다. 단, 고립해서는 눈치챌 수 없다. 누군가가, 무력한 모습으로 함께 있어

주면,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 초월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있어도 된다.」라고, 사람은 거기에, 절망에 대한 저항의 단서를 찾아낸다.

종교자는, 깊은 절망속에 서있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다. 기도와 의식은, 그것을 위한 기술이다. 기도와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무력한 그대로, 한계를 드러내며, 종교자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다.

절망 했을때, 초월을 보이는 것. 그것이 종교자에게 할 수 있는 장례식이었다. 그 장의를 행하기 위해서, 종교자의 협력은 불가결했다. 이 협력에 의해, 종교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상으로 지금, 피폭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 중에서, 한번 더 확인하며 진행하고 싶다. 거대한 피해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어찌할수없는 시간을 더해가며, 다가오고 있는 불안에 사로잡힌다 (-일부 학자가 말하듯이, 그 불안이 기우인 것을 절실히 바라면서!) . 그 불안을 앞에, 무력한 자신이 있다— 그것이 후쿠시마의 현실이다. 여기에 절망은 쉽게 조용히 다가온다. 거기에, 종교자의 역할이 있다. 사람들과 함께 남아, 절망에 저항한다.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조용히 의식을 행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과 불상에게 감사하면서, 행한다. 그 무력의 상태에, 초월의 통로가 개척되는 것을 환시 하면서.

피해지역에서 체감 한 일들을,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것. 그것은 살아 남은 사람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묻는 날은, 이제 도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종교가 협력하고, 절망에 저항해 초월의 통로를 열기 위해 기도 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